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 기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현충일 맞아 논평 발표



정서영 목사

제68주년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일본과 북한 등은 무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침략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국민은 그 한에 저항하며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들이 모여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지만,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과 핵책, 체제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남북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가 하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제조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고립과 단절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란다. 침략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한다.

역사를 기억하고 배움으로써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우리의 장병들은 피 흘려 방위선을 지켜냈다. 6·25전쟁,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등에 대해 올바른 역사를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하며, 교육으로 국민이 더욱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 평화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기교연, 제2회 춘계연합수련회 개최

한국교회의 장단기 미래 발전 전략 수립

한국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을 이끄는 (사)기독교교회개혁신환회(대표회장 박대규 목사, 이사장 남윤국 목사/이하 기교연)은 제2회 춘계연합수련회를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하고 앤데믹 시대, 새롭게 바뀐 목회 환경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장단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나기도회(대표 김은혜 사모)가 후원한 이번 수련회는 전국에서 약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과 찬양, 기도, 특강이 이어졌다.

목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고자 마련한 수련회인 만큼, 유명 강사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예정통합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본



향교회 원로), 목회자 사모 세미나로 유명한 설동욱 목사(예정교회)와 복음성가 작곡가인 김석균 등이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 참가자들과 함께 믿음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개회 예배의 설교는 이사장 남윤국 목사가 맡았다. 남 목사는 행 13: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주

제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과 신앙을 조명했다.

남 목사는 “다윗은 삼기교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목표를, 올바른 마음으로 사용한 사람, 자기 성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자기 생애의 중요하고 과제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기성 제117년차 총회, 총회장 임석웅 목사 선출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김정호 장로 목회자 이중직 부결 등 처리

기독교대한성경교회(기성) 제117년차 총회가 5월 28일 폐회되었다. 28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최되어 사흘간 이어진 이번 총회는 신임 총회장에 임석웅 목사(대연교회)를 세웠으며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가 선출되었다.

신임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취임사에서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진행하겠다”며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교단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부결 처리됐다.

또 미지리교회 중 이미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현직을 감안하여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관한 판단을 감찰회에서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미지리교회’ 기준에 대한 모호함, 이중직 허용으로 목회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던지 못했다.

그밖에도 부목사가 담임목사 사임시 자동 사임되는 헌법 제8조 3항 나호의 내용에서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헌법 시행세칙 개정안은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지난 제115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BCM 공과교재 무상보급은 이번 총회에서 유상보급 청원안이 통과되면서 2년 만에 종료됐다.



쪽방촌 어르신 시집 출간기념회 개최

엘드림노인대학, “그림처럼 우리를 스쳐간 세월”

엘드림노인대학 쪽방촌 어르신들의 시집 출간기념회가 지난 5월 19일(금) 서울 마포구 엘드림노인대학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소셜서비스NGO (사)엘드림노인대학(이 사장 장현일)가 주최, 신한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소장 최에스더 교수, 엘드림노인대학장)가 주관하여 지난 1월 마음으로 여는 시 창작교실을 개설하여 5개월 만에 소중한 결실을 보았다.

최에스더 소장(신한대 K뷰티학과 교수/시인)은 환영사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삶으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삶의 흔적을 시를 통해 큰 감동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제 당당한 시인으로서 우울증과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류경근 교수(신한대 경기북부개발연구원



장, 시인)은 인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시 창작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어르신 대학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시를 통해 지기를 잘 표현하며 힘차고 활기차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일 목사(대흥동교동협의회장/시인)는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가 심각한 이 때 고독사(死) 문제를 고독생(生) 관점의 정책적 전환을 위해 평균 연령이 80인 어르신 분

들을 세상 편견과 고립에서 차단하고자 ‘시 창작 교실’을 열어 생명을 살리는 마을센터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성 운동으로 꽃피우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석희 의원(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 오우자 의원(마포구의회), 김승수 의원(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희 의원(마포구의회)과 김명식 대흥동장이 축하했다.

영안교회, ‘사랑의 박스’ 전달

가정의 달 맞아 성도들 헌금모아 사랑실천



영안장로교회(담임 양병희 목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영안교회는 지난 5월 23일 가정에 꼭 필

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박스’ 400개를 중랑구청에 전달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박스는 개당 12만원 상당으로 이번에 전달한 물품 총액은 5천만 원에

달한다.

물품을 기증받은 류경근 중랑구청장은 “영안교회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셨다”라며, “이와 같은 사랑이 따뜻한 중랑구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또 “영안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고 장학지원을 통해 다음세대를 키워내는 고마운 교회”라며 “이런 교회가 중랑구에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라고 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가정의 달이 되면서 더 외롭게 느끼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의 박스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기아대책,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다문화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 위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국내 거주 중인 저소득 위기 다문화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1차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5월 26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은 희년의료재단과 함께 저

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복음전파의 목적으로 기획됐다. 26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2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기여하고 협력병원 확대, 응급의료비 지원, 예배 중심 커뮤니케이션

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주요 사업은 ▲건강검진, ▲무료 진료소 운영, ▲화원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비 지원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건강검진은 대한결핵협회, 한센복지협회 등과 연대하여 5대 검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료 진료소는 매주 일요일 내과를 포함한 10개 진료 과목을 제공하여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접근성을 돕는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 중 국내 근로 경험에 있는 경우 일성적 의료비와 응급 의료비를 나누어 최대 5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국 495개의 병원이 이번 사업에 협력하며 의료비 사각에 동원하고 협력 병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생명의 말씀



엄기설 목사

· 교단 전임 부총회장
· 은혜와찬양교회 담임

은혜에 대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지기가 너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지만 또 다시 넘어진 다음에 심각한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은 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분이 부족하네 하고 바꾸어 가야지 좀 더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으로 태어났습니다. 뒤는 다고 해서 하얀 비누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락 그제 우리 육입니다. 육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죽었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요 15:1-8)

히 육이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성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쏘아 나간 비누가 될 수 있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 강간, 도둑질 등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제책질하며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주를 놓치지 않을게요.”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며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체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습은 모습이라면, 개전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께 서신자에게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이것을 지켜 그러면 사랑해 줄게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으신다면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기만을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주 용기 있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래 주하고 악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죽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즉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자에게서 좋은 부분을 볼 때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

는 저의 모든 아름다운 부분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빌려 쓴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고 빌려서 받은 것입니다. 또 제게서 부족함이나 잘못 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났다면 그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고 했습니다. 주를 부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주를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금 모든 시작이 실패하는 것은 기도할 때 외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열매에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파도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으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이 아닌 오로지 거북

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왜지나 그 어떤 것을 보았다 해도 그는 빠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다른 어떤 것을 보았다는데 있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입니다. 인간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주를 부르세요. 꿈에서도 부르세요. 저는 암투병 생활 후 받았으로 주를 부르며 잠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주세요. 그렇게 주를 붙들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그저 밭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주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죄짓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어떻게 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당연한 거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그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십시오. 주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제게 어느 정도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한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이들 오직 예수를 붙드십시오.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놓치지 마세요. 돈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동정

CTS, 영유아돌봄 사업설명회



CTS 기독교TV(회장 감경철)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한 ‘서울형키즈카페’ 및 ‘교회형 영유아돌봄’ 사업설명회가 지난 5월 30일(화) 노량진 CTS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교회의 아동돌봄사업 방안들을 모색했다.

제188회 연세조찬기도회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설립이념을 지명하는 연합신학대학원동창회(회장 양명환 감독)가 지난 6월 1일(목) 창천동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제188회 연세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장 양명환 감독은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가결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는 이날 오전 터너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1표 만장일치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침신대, 기관장협의회 열어



한국침례신학대 학교(총장 피영민)는 지난 5월 8일(월)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침례교 주요 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장협의회를 열었다고 6월 2일 밝혔다. 이날 침신대에서는 피영민 총장, 안희열 기획실장, 김사라형선 교무연구지원처장, 이재문 법민국장이 배석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이 있는가?

진보 성향의 모 언론사의 5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결정하면서, 그중에 모 상임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즉 인권위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문제는 군대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 사항이라는 전제적인 결정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은 소수 의견을 달면서 ‘게이(남성동성애자)들이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괴되어 대변을 흘리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인권침해가 될을 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頭髮)에 대하여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럼 신병들이 장발(長髮)을 하

고 훈련을 받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 인 것이라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항문 성교를 통하여 신체가 망가지고, 끝내는 매우 불쾌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인권위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삶의 질을 망가트리는 것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인권 개선’이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도 인권위는 대한민국 청년 1%가 간다는 해병대 신병들의 두발 상태를 놓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권고들이나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의 발언은 내부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문에서 삭제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들이 언론과 진동성에

단체 등에 흘러나가, 그 해당 상임위원을 ‘망신 주자’와 ‘정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때로 인권위 전체와 다른 의견을 낸 모양이다. 그 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 판사를 지냈고 현재는 모 유명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법률에 관하여 전문가인데, 그런 소수 의견을 냈다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의 인권을 박탈 내려는 것인가?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면 상당한 지위와 법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인물들로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여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소수 의견과 인권을 짓밟는다면, 이것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 위원의 소수 의견에 대하여 공격받도록 유도한 것인가? 내부 판결 내용이 알려지고, 이름을 알리고, 진보 언론들이 이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진동성에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그 상임위원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문 재판’ ‘인민재판’과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도한 진보 언론의 기사 뒤에 실린 댓글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권위가 가한 처벌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든 게이를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다’ ‘항문 성교 후유증이 변실금이라는 것이 의학적 사실인데, 왜 혐오 표현인가?’ ‘어느 부분이 혐오인가? 부정하는 자체가 혐오스러운데’ ‘비만은 건강의 위험,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라 말하면서, 동성애의 문제

점인 변실금은 알리면 안 되나?’ ‘왜 동성애가 나쁜지 온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라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인권 규정 안에서 마치 ‘땅 파먹기’를 하는 철없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우리 국민들의 별별 사소한 것들까지 소위 인권이라고 틀어대면서, 북한 주민들의 심각하고도 절박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마치 술개 앞에 병아리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 그런 기관이 아무 쓸모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국가기관으로서 대단한 기이 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내는 듯 하다니 한심하다. 이는 한 마디로 국력 낭비이다. 정작 해야 할 동성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삶과 ‘행복추구권’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쪽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인권위가 사족(蛇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제기능,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국 교회와 함께 합니다!

드림1004(DREAM-1004)

마음과 정성을 담은 금융(카드) 결제 시스템

- *32인치 대형 모니터로 시각적 편안함
- *이동바퀴 설치로 편리한 이동성
- *한 눈에 들어오는 쉽고 편리한 현금종류
- *뛰어난 내구성과 완벽한 A/S 지원



모든 결제 수단 지원 카르디아 시스템이 제공하는 통합형 드림 1004 키오스크 단말기는 모든 신용카드결제, 체크카드, 모바일카드결제, 간편결제(삼성페이) 등 국내의 모든 주요결제수단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드림1004 키오스크는 카드 (금융)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무기명·기명·광고 및 교회소식(관리자 수시 변경가능) 다양한 현금 프로그램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소식, 각 성전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기명·무기명 각종 현금 구분이 편리해 마음을 담은 현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누는 기업

카르디아(주) 금융결제시스템 스마트사업부 032)818-0691, 010-2650-8044

세계하나님의성회-WAGMCM-선교 지도자회의 개최

Finishing the task together “함께 임무를 완수 하자” 주제로 열려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 소속 나라 선교 지도자들 회의가 미국 하나님의성회 미네소타 지방 총회 제네바 호수 크리스천센터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7개국 예하성 선교위원장 심용제 목사를 비롯 15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각국의 현황과 보고가 이어졌다.

함께 임무(하나님의 선교 사명)를 완수

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지도자 회의에서는 각 지역별 모임과 선교사 파송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각 지역별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의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본 교단 선교위원장 심용제 목사는 총회가 파송 되어 있지 않은 나라 지도자들과 선교현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

었으며 브라질 관계자와 아프리카 관계자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지역(인도 등)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각국 현황 보고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약진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현재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에서 6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본 총회가 일본하나님의성회와 선교협약을 맺은 것을 보고했다. 또한 참석 국가들이 함께해 나가는 협약에 사인하는 시간 등으로 아주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 참석으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는 더욱 세계 하나님의성회(WAGF, 한국실행위원 조용목 목사)와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 WAGMC에서 그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세계 하나님의성회 총무인 도미



닉 야후 목사의 세계 하나님의성회 프로젝트인 MM33 (Mandate Mission 2033)를 2033까지 하나님의성회 교회가 백만 개 교회 개척 프로젝트에 관하여 나누고 각 나라에 교회 개척을 위해 협조를 구했다.(이는 오는 7월에

싱가폴에서 있을 아시아 태평양 총회장 모임에서도 다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역 별로 토론을 통해 아주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회기가 의미 있는 현재와 미래에 선

교 현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속해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선교국과 위원회를 위해 또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단양지구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찾아 장병 위문

군선교위원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5월 23일(화) 단양지구 전투 전사자 유해발굴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박순용 목사를 비롯 경기남지방회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와 부흥사협의회장 김기진 목사 등이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이른 더위에 유해발굴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사한 장병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고를 하는 장병들을 위로 방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이날 정석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여 나라를 위해 전사한 장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다시금 이 땅에서 전쟁



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되새겨 주었으며 이를 위한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흘린 땀 한 방울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유시자 장병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귀환 군생활의 추억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부대장은 이곳까지 찾아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단양대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군선교위원회는 500고지 현장에서 가지고간 빵과 음료수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성혜교회 창립예배 드리고 복음전파 다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바울 목사)는 지난 5월 27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성혜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안재봉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회계·재무 김경순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회장 김바울 목사는 마 18:5-14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어린이이로 사는 것

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교회를 맡은 담임목사는 어린이와 같은 낮고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성혜교회의 담임 이동웅 목사는 목회 사역 중 가장 박치고 기쁜 날이라고 고백하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께 전심을 다하여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권면의 시간으로 중경회장 정광호 목사(동문교회)가 끝까지 주민들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하고, 전임회장 김종연 목사(의정부은혜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김바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기운에 마쳤다.

월례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뜨겁게 기도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5월 25일(목) 오전 11시 경주시 원효로 62번



길에 위치한 성산팔복교회(담임 이종섭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 재무 이종섭 목사의 대표

기도, 사회의 특송, 오경덕 목사의 성경봉독,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마 1:21-28 말씀을 본문으로 '떨고 있니? 귀신이야?'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황용식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직전회장 김영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월례회는 서기 성기찬 목사의 회원 호명 후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가 교단과 지방회 보고 및 안전 토의를 진행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후 회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사람의 교제를 나누고 다음 월례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엘림교회 박은정 목사 및 성현철 장로 임직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바울 목사)는 지난 5월 20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연천에 소재한 엘림교회에서 목사안수식과 장로임직식을 은혜롭고 경건하게 열었다.

이날 하나님이 부르시고 따라 되어 주님의 은총과 기쁨 부음을 받은 박은정 목사는 기록한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여 겸손함으로 목사안수식을 통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성현철 안수집사는 맡겨진 교회 양육과 담임목사를 장로임직을 통해 끝까지



성실과 겸손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을 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드림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마 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거룩하고 복된 안수식과 축인식을 가진 후 참석한 모든 안수위원들과 참석자들이 통성으로 두 임직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전임회장 은금홍 목사(선한이웃교회)의 권면과 전임회장 전하세 목사(엘린축복교회)의 축사로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임직예배에 대한 감사로 회계·재무 김경순 목사(화목한교회)의 헌금기도로 올려진 후 설교자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영숙 목사 목사임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총회직속지방회

2023년 목사 임직예배 드려

총회직속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5월 30일(화) 오후 2시 김포은혜순복음교회(담임 이강호 목사)에서 2023년 목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목회자로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교단 총무 정



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담전 6:11-16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신 목표를 잘 달성함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당부하고 임직자를 축복했다.

이어진 안수식은 안수위원(위원장 김병목 목사, 안수위원 김영준 목사, 정진균 목사, 윤기석 목사)에 의해 임직자인 한영숙 전도사에 대한 서약 및 안수, 착의, 악수례, 공포, 임직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거행되었다. 이어 축사 및 권면으로 교단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가 임직자 한영숙 목사와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해 줄 것과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사회자의 광고,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2023년 목사임직예식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 발기인 모임

교단산하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발기인 모임을 갖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 대전시 대덕구 중리서로 41번길 45

준비위원장 기호선 목사, 총무 이반석 목사
참여문의 010-5145-3816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개회에배설교

저녁집회설교



김병묵 목사
교단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직전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일시 2023년 6월 19일(월)~6월 21일(수) 2박 3일

장소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마지리236-3)
- 서울 대림벤엘교회에서 6월19일(오전 10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전철 2호선 8번출구, 전철7호선 12번 출구/자차로 오셔서 교회주차장에 파킹후
버스로 승차하시면 됩니다) ☎ 010-7477-8018

대상 전국 여교역자 참가비 1만 원

문의 실장 조영란 목사 (010-7477-8018)

계좌번호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문의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010-7592-5575)



국장 백영자 목사
녹둔순복음교회

모시는 글

존경하는 여교역자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영혼을 사수하고자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주의 권능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로 펜데믹이라는 상황에 놓여 그동안 만나 뵙지 못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교회의 시련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얼굴을 대하고 모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전국 여교역자들이 함께 이 시대적 사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4:9~12 말씀에 “두사람이 한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 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쁘이고 능력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는 주제로 다시 모여 영육으로 새로워지길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여교역자님들을 초청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주제 :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잠언 22:29

1.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라

2.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3.고난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2023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19일	20일	21일
05:00			
06:00		새벽예배 사회 : 김종애목사 기도 : 한정숙목사 설교 : 탁정선목사	새벽예배 사회 : 최경희목사 기도 : 표현자목사 설교 : 한순남목사
07:00			
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자연과 함께...	새벽예배 사회 : 안선자목사 기도 : 조은혜목사 설교 : 정부용목사
10:00		정선 레일바이크	점심은 저부별로
11:00			
12:00		점심식사	
13:00		“보시기에 좋았더라”	
14:00		그 말씀속으로 평창 600고지	
15:00	등록		
16:00	개회예배 사회 : 조병희목사 기도 : 김영준부총회장 특송: 부산지방회 설교: 김병묵 총회장		
17:00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20:00	저녁집회 사회 : 이복순목사 기도 : 황연선목사 설교 : 신재영총회장	저녁집회 사회 : 김찬애목사 기도 : 김정순목사 설교 : 백영자목사	
21:00	합심기도:안선자목사	합심기도:이복순목사	
22:00			

대중교통 이용시 평창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평창터미널에서 330번, 332번, 334번, 75번 승차 후 마지1리 하차
서울 대림벤엘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 /



정책위원장 조중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둔순복음교회

조 직

임원단



예배부장
기정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목자부장
진리와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봉사부장
군일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태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주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획실장
일산벤엘교회
조영란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독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은혜와사랑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예수강교회
정예스더 목사



지부장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지부장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경자 목사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지부장
시냇가예수나눔교회
표한자 목사



지부장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지부장
불평복한교회
신종일 목사



지부장
초심교회
김희자 목사



지부장
불평안교회
서명란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지부장
순복음갈릴리교회
최명애 목사



지부장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지부장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지부장
은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지부장
의금교회
김순덕 목사



지부장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구원의 복음전파 위해 태권도 발차기 압-

대한태권도선교회, 필리핀 일로일로 지방경찰청에 태권도를 통해 복음전파



태권도선교회 회장
이후관 목사

대한태권도선교회는 할렘루아태권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2001년 현선교회 회장인 이후관 목사와 필리핀 태권도 지도자 2인의 기도모임을 통해 세계스포츠타권도단 경인교회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할렘루아태권도선교단으로부터 독립하여 할렘루아태권도선교회로 개명했다. 그동안 할렘루아태권도선교회는 필리핀, 러시아, 라오스에서 거행하는 할렘루아태권도선교회대회를 지원함으로써 선교지에서 태권도 선교가 활성화 되는데 앞장서 왔다.

대표회장 이후관 목사(순복음신나는교회, 예하성서울남서지교회)는 지난해 태권도선교 발전을 위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회 명칭을 대한태권도선교회로 개명하고 태권도선교회학의 정립과 교육과 훈련, 협력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대표회장 이후관 목사는 지난해 10월 10일 크리스천 태권도 지도자 및 사범, 전문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태권도라는 귀한 달란트를 활용한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전파를 위해 전력을 나감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후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약하지만 태권도를 활용한 선교활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협력과 성원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 “태권도 선교신학의 정립과 태권도 선교사 교육과 훈련, 선교회 소속을 초월하여 일선 태권도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관 목사는 최근 필리핀의 섬 중에 여섯번째로 큰 섬인 파나이섬, 섬의 주도인 일로일로 지방경찰청에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

이번 필리핀 태권도수련은 해당 지역에서 경찰자문위원으로 봉사하는 한국인 선교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청에 소속된 경찰병력은 약 8천여 명 정도이며, 태권도수련에는 매 년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두 주간씩을 머물며 태권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숙소를 제공하는 한지교회(한인 선교사 담임)의 학생들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지난 2월에 방문하여 협약하고, 4월부터 태권도수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태권도선교회는 복음전파가 아직도 미미한 동남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제목을 내놓고 이를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1. 태권도를 수련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하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2. 강당에 바닥매트 5백장, 도복 150벌, 각종 태권도용품이 구비되도록.
 3. 현지 모리야교회에 바닥매트 150장, 도복 70벌, 각종 태권도용품이 구비되도록.
 4. 매 반 방문시 재정이 충족되도록.
- 연락처 010-2322-0049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 220 75147
서울남서지방회 순복음신나는교회 이후관 목사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논평

“징용문제에 금전적 배상보다 도덕적 우위를 택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양국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애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결실물로 꼽혀 온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번째 대정부의 해법은 ‘강제 징용 해법 입장’에서 장기간 경제색이 온 한일 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하여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菅田 文雄)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는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이후 52일 만에 이뤄진 기시다 총리의 대담으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이 되는 올해 양국 정상이 빈번하게 상대국을 오가는 ‘서툼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하여 “한일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미 테디 윌슨(테디 쿡)과 맥스 부트 캅넬리스트는 3월 7일(현지 시각) WP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반일(反日) 감정이 한국 정치에서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남아 있지만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올바른 일본과의 역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관계 개선에 성공한다면 그간 격정스러웠던 한일 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고 윤 대통령은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살름내비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 징용 배상 해법을 환영하면서 다음같이 전명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일본 방문 정상회담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방안은 그동안 꼬인 한일관계의 물고기를 뚫다.

각각 법원이 타국과의 분쟁에서 ‘해국적 관할’을 남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징용 배상에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0%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징용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들 한자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액을 채울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도 불투명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월 8일 “한국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3월 16-17일 윤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은 양국의 협력적 관계를 확인,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번째, 구상권 청구 포기,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등 실패처를 없힌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낸 의미가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짐을 윤석열 정부가 받아 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징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국내 사법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서두른 것은 일본 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대법원이 언제 결심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법원이 집행을 마뎌 놓은 현금화를 결정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를 뒤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인정하고, 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 풀 생각이 하지 않았다. 문화상 국회의장이 대신 나서서 중재안을 냈을 때도 눈치만 보다가 어른이 심상치 않자 등을 돌렸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합의는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불신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각종 중재안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윤대통령이 선도적으로 용기 있게 결단한 미래

지향적 외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 ‘삼전도 굴욕’ 일본 하수인’ 같은 야당 대표의 국언은 국가 이익보다는 반대를 위한 당략적 발언이다.

3. 한일관계는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 징용 배상 방안(제3자 번째)을 밝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 과반은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한국리서치가 7-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에 대해 ‘잘못한 결정(63.1%)’이라는 응답이 ‘잘한 결정(39.8%)’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긍정이 과반이었다. 20대의 51.2%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30대도 36.5%가 ‘잘했다’고 답해 40대(23.5%), 50대(21.5%)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외교관계는 국제 관례에 따라서 해결해야하는 만큼 윤 정부는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4. 금전적 배상보다는 도덕적 우위를 택한 것이 도덕적 우위 국가의 위상에 맞다.

일제 침략의 고통을 겪은 중국은 1973년 중일 수교 1년을 앞두고 진행된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에서 배상액에 집착하기보다는 명분을 택한 일화가 있다. 당시 청구권 협상을 진행한 중국의 영원한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는 과감하게 청구권 배상을 포기하고 도덕적 명분을 선택했다. 당시 저우언라이가 강조했던 용어가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이덕보원(以德報怨)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하수이며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상수다. 도덕적 명분과 우위를 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파트너로 삼는 것은 도덕우위적 접근이다.

5.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위상에 올라선 국제적 위상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일본을 대해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세계 10위 경제국이며 한류라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21세기의 문화 아이콘을 보유한 한국에 맞지

않는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천명한 현 한국 정부의 위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두 나라에 모두 반일, 반한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올해 들어일본을 찾은 관광객 3명 중 1명이 한국인이다. 한국에선 ‘슬램덩크’ 같은 일본 영화가 인기를 끌고 일본 가요 차트에선 한국 노래가 상위권이다. 한국은 전자부품과 배터티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이러한 위상에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다.

6. 오늘날 일본은 예전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우방이다.

중국이 시진핑의 당집권 일인체제로 나아가며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일본은 더 이상 예전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우방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직접적 상대국이고,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여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자유우방이다. 이제 한일관계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이제 양국은 국제적으로 자유 안보를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국이 사실상 G8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역시 일본이 세계적 리더 중 하나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점에 우리의 G8 진출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에 공동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국제 사회도 윤 정부의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번째’ 해법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일본 문화 수입 개개의 결단을 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대해 미 정치권과 언론, 싱크탱크 등 조야(朝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고가 실렸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징용 합의가 한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도 3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중국의 군사적 굴기, 북한의 끝없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석좌는 이번 징용 배상금 해법 발표가 박근혜 정부 임기 중만 발표됐던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와 달리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나온 점도 주목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EU,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주한 미상공회(USKCC)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8. 이제 한일관계는 전적으로 日 호응에 달려 있다. 일본은 독일의 사죄에서 배워야 한다.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윤 대통령의 방일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일본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사죄와 관련,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식민 지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는 대신에 강도 낮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한국 사회가 바라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왕복 외교 복원으로 최근 1년간 동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 낸 주역들이 됐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을 밝히야 한다.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해야 진짜 사과가 된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시 유대인 가해 및 학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실전하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일본 기업이 징용피해자 지원재단에 참여하는 길도 아직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의 3월 17일 방일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없는지는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달렸다. ‘일본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성의 있고 진심 어린

자세로 호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진정한 미래 지향적 우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변 국기를 위협하는 해양굴기, 북한의 핵·미사일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더욱이 한일 양국은 경제 위기, 인구 감소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얽매어 있을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일(反日) 좌파와 일본의 협한(嫌韓) 우파에게 휘둘리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부담을 안고 용기있게 선도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기시다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성의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

9. 한일일 공조로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G20과 OECD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런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라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국제사회의 환영 성명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윤 정부가 징용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북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문제 대응 등 양국 협력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자유·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이 3국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12년만에 서툼 외교를 복원한 한국과 일본 정상은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율곡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고 양국간 수십 년간 지속된 도전 과제들을 심도있게 상호적으로 논의하고 이번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연대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22일

살름을 꿈꾸는 나비행동

성서공회, 제139회 정기이사회 개최

국내·해외와 무료성서보급 등 현황 보고

대한성서공회 제13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송태근 목사(삼일교회)가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부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의 사장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다.

권의현 사장은 사장보고에서 “국내 성서 보급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서 260,318부가 증가한 414,173부의 성경을 보급했으며, 해외 성서 보급 사업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는 62개 나라에 78개 언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577부가 증가한 1,810,792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해외 성서 기증 사업으로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미화 25만 불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개 성서공회에 25,2570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했다.”며,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난 해부터 4차례에 걸쳐서 총 39,2800부의 성서를 기증했으며, 금년 2월에 일어난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기증할 성서 31,600부를 제작하는 중에 있

다.”고 밝혔다.

호재민 총무는 모금 사업 보고에서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신 헌금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총 3,529,735,318원이다. 금년 4월 말 기준, 33,713명의 후원회원들께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국내외 성경 기증 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3,007곳(명)의 교회·기관·개인들께서 국가를 지정하여 미지립성서공회 성서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모금사업에서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성경 지원을 위해서 총 95,347,938 48원(2,883,321)의 헌금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셨다.”라며, “한편 금년 2월에 일어난 지진으로 어려움을 처한 튀르키예에 성경 지원을 위해서 총 144,049,208원(1,101,121)이 담지했다.”고 보고했다.

첫 성경 번역 작업 지원에 대해 호 총무는 “미얀마의 파오어 성경 첫 번역이 지난 2012년부터 약 10여년간의 작업(명성교회 후원) 끝에 완료되어 금년 2월, 미얀마 현지에서 봉헌예배를 드렸다. 파오어 성경의 출간으로 파오 부족 약 1백4십만 명을 위한 복음전도가 할 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편 예산(책식)총회에서 미얀마 지파에 첫 번째 성경 제작 비용(4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다음세대 복음 전파에 중요한 도구 되길

사)한국순례길 출범식, 기독교 근대문화유적지 알린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사장 박상은, 생명원 미션원(장)은 5월 26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독교 근대문화 유적지를 알리는 사역을 시작했다.

박 이사장은 인사말 및 비전선언에서 “순례길을 잘 개발해 한국에 지쳐있는 많은 이웃 분들에게 잘 소개되고 다음세대의 복음 전파에도 중요한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순례길은 배우 임형준·이현경씨를 홍보대사로 장현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위원장)를 정책자문위원으로 김민영 이사(지오국제문화재단)를 전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 목사(김리교 감동회장), 전제규 정로대신대 전 총장), 문희성 목사(영주한빛교회),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축사에 이어 박재전 목사(시인, 문인교회)의 축시, 상임이사인 임병진 목사(소악교회)는 사단법인 출범식 경과보고를 했다.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는 이사 김윤환 교수의 사회로 고문인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는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신 8:2-3)이라는 설교에서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걷는 사람”이라며 “영적인 순례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다. 전국 순례길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아신대학교 대학원,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아신대학교 대학원(이하 'ACTS')에서 2023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2023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금번 후기모집은 △일반대학원(철학박사, 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대학원(목회학, MA신학, 성경강해학) △선교대학원(일반, 이집트, 북한, 미디어, 비즈니스선교학) △교육대학원(상담, 교육과정) △상담대학원(기독교상담, 가족상담)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다문화사회복지융합) 등 6개 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대학원은 박사과정 5명을 포함하여 26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다양한 전공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심층 깊은 신학연구를 할 수 과정이다.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은 트랙제를 도입(목회, 선교, 교육, 상담트랙)하여 목회현장별로 전문화된 사역을

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신도를 대상으로 성경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신학전공(문학석사)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교육대학원은 방학중 계절제 수업, 선교대학원은 온라인위주 석사학위과정 운영, 상담대학원은 하이브리드 수업 진행,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은 2개의 자격증을 동시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전공과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ACTS 대학원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31-770-7794~6

대학원홈페이지www.acts.ac.kr/grad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트전도 제주집회를 마치고

지난 5월 24, 25일 이틀간에 걸쳐 마침 제주를 방문한 박영수 목사, 이수 교수와 함께 교회에서 전도세미나와 상가전도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여러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막상 교회로 돌아와 교회현장에서 적용하면 실제 전도열매는 거의 없는 과거의 사례 때문에 “이번 전도집회를 꼭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하나?” 하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선교 연구원 회원교회로 등 떠밀리듯 맡았고 이렇듯 마음과 기도로 영적무장을 하고 준비해도 어려운 전도인데 이렇다 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행했다.

먼저 “지금은 전도는 안 된다”고 외쳤던 나를 되돌아보며 개척교회 목사로서 부끄럽고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박영수 목사와 동내상가와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하루 한 시간, 20명도 안 만났는데 10명 내외가 영접기도문을 따라 하고 자기 이름과 생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말하며 예수를 믿겠다, 교회에 다니겠다고 했다. 내 앞에서 벌어진 전도현장은 목사인 나를 놀라고 부끄럽고 당황

스럽게 만드는 기적의 현장 그대로였다.

내가 경험한 가족세트전도는 지금까지 다른 전도와 전혀 다른 말로 표현 못할 그 무언가가 있다.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어떻게 하면 영접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게 함께 집중하여 1-2분 짧은 시간에 영접기도문을 따라 하게 하는 것이다. 영접기도문을 따라 하면 전후가 확 바뀐 모습과 태도를 옆에서 경험하게 된다. “전도는 영적싸움이다”라는 말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전도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가족세트전도의 놀라운 경험을 함께 누리길 강력히 추천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주 주님동산교회 임동중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장기기증 감동 담은 ‘생명나눔 콘서트’

공연과 함께 생명나눔의 감동 소개 장기기증 활성화 기대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광림아트센터 장전홀에서 애플뮤직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콘서트-봄을 노래하다’를 진행했다.

이번 콘서트는 2시간 동안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 10여 곡을 공연하며, 생명나눔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상 및 사연도 소개되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사회자로 13년 간 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예바 포피엘 씨가 재능기부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 콘서트’를 주최한 ‘애플뮤직(대표 최혜영)’은 2020년 7월 결성된 이후 클래식 공연을 통해 치유와 감동을 전하고 있는 음악가들의 모임으로 기업 및 가정을 찾아가 선보이는 콘서트부터 음악 이벤트까지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제 6회 정기연주회를 본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 콘서트로 기획한 애플뮤직 최혜영 대표는 “지난 해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한 본부 행사에서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사연을 직접 접하고 난 후, 큰 감동을 받



았다.”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생명나눔 콘서트에는 애플뮤직 외에도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생명나눔의 감동을 노래했다. 생존 시 신장기증인 및 이식인, 장기기증인 유가족인 모나페밀리, 조혈모세포 기증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및 후원자, 본부 직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생명나눔 중장단’은 지난 2달 간 이번 콘서트를 위해 한양대학교의 동문과 가족, 그리고 직원들로 결성된 ‘함께한데 합창단’과 함께 맹연습에 돌입했다. 콘

서트 막바지에 무대에 오른 생명나눔 중장단과 함께 한데 합창단은 ‘못 잊어(김소월 시, 조혜영 곡)’와 ‘나하나 꽃피어(조동화 시, 윤학준 곡)’를 함께 부르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자 및 재능기부자, 관객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친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생명나눔의 가치와 희망을 알리는 이번 ‘생명나눔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생명나눔의 감동이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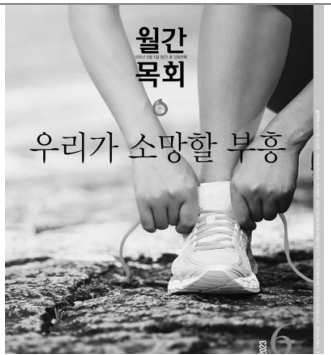
‘월간목회’ 6월호 ‘부흥’을 생각한다

지난 2월 미국 캔터키주 애즈버리대학교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주최자가 없는 ‘부흥’ 운동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역사 속의 사건으로 기억해온 부흥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을 갈망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 이에 ‘월간목회’ 6월호에서는 ‘부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어제와 오늘의 부흥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한국교회가 함께 소망해야 할 부흥을 고민한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 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키펜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 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마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어머니의 말 한마디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세계적인가수 마리아 앤더슨(Maria Anderson, 1897-1993)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고 합니다. 당시 흑인들의 집안이 대부분 그릇덜 마리아의 집안도 당장 먹고 살기 벅דות하여 성악에 재능이 있었던 마리아는 음악학교에 지원할 형편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 것은 가난보다는 인종차별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하였기에 친구들이 많았지만, 피부색이 검다고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음악 공부를 지원하지 못했으나 다행히도 마리아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우수한 성적으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925년 뉴욕 필하모니 주최 신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여 유명 관현악단의 독창자로 선발되었지만 심한 인종차별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도 슬펐으며, 깊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해야, 위대함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오늘 네가 여기까

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권면했으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마리아에게는 감사의 마음과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1955년 마리아 앤더슨은 60살이 넘어서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기면무도회〉였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잠시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언제나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렐 4:12:13)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지혜와 명철이

지혜와 명철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지혜네 집 따로...

명철이네 따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

지혜와 명철이가 한집에 살고 있었지 뭐니까...(잠 16:21)

지혜 있고 명철치 않은 자 없고,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더라구요.

지혜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잠 3:18)

명철이네는 생명샘물을 먹는다니(잠 16:22)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집 주인은 사랑의 우리 예수님입니다.



2020. 8. 17
오늘이 17일.. 잠언 17장을 읽어 내려가다
24절에 시선이 멈춘다. 지혜와 명철의 관계를
묘상하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까지 묘상되어진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성명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모두 폐지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총 11차례 발의되었으나, 7개 법안은 철회 또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4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차별금지법 입법 찬성 측의 주장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입법 찬성 측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의 차별금지법 폐해 사례는 절대 다수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해외의 차별금지법 폐해 사례가 국내에서도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외국에서는 남성의 생식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후에, 이를 악용한 여성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성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에서도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외국에서는 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제수영연맹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했고, 미국의 각 주들은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2016~2019년까지 성전환 수술 아동과 청소년이 400%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학

교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과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입법이 거부되자,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들 수 있다. 이들 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하거나, 양성평등' 용어 대신 동성애와 성전환, 혹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교육 영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교육과정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차별금지법 옹호 주장이 남아 있다. 기존의 초·중·고 교과서에도 이를 옹호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국내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에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父)가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2023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또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자에게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는 젠

더 이데올로기를 따른 것이다. 또 군형법은 군인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와 동일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LGBT 인권단체와 급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대안으로서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아울러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

둘째,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 유사 차별금지법 관련 조례를 폐지하라!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서를 개정하라!

넷째,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징계하고, 관련 판결을 파기하라!

다섯째, 국회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정정법을 제정하고, 동성 커플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

2023년 5월 19일

한국기독교한림원

조용목 이사장 정상은 원장 외 정회원 교수 일동

〈정회원 교수〉〈가나다순, *표는 전직〉

김원평(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김산배(*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목창균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박명수(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교회사회회 회장), 박용규(아신대학교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김정숙(강릉영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신학회 이사), 안명준(명덕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임성택(*강서대학교 총장, 미래세대청년연합교회 대표), 이광희(평택대학교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이등주(*아신대학교 교수, 바이어허우스학회 회장), 이상규(백석대학교 석좌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이승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이역주(*칼빈대학교 교수,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이은신(인양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회장),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정상운(*성결대학교 총장, 대학총장포럼 회장), 최다해(대신대학교 총장,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